제삼자 믿지 말고 자불 믿으세요

오늘 덥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아주 시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듣기 싫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마음이 인생을 중요하게 끌고 간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사람이 살기가 무척 어려웠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모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집에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사는데, 그나마 그냥 먹고살게 내버려 두면 좋으련만 마적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한바탕씩 끌어가면은 도무지 살길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관하기를 마적들이 오지 않아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용왕님한테 만날 빌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배가 그냥 둥실둥실 집 앞으로 떠내려 오는 것입니다. 빈배가 말입니다. 빈배가 오는데, 빈배가 저렇게 온다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배를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떡 누워서 계시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배에서 내려 하는 소리가 "나는 소금밖에 못 만드는 사람인데 소금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노인네가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됐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소금이 없으면 살기 힘드는 일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소금을 하도록 허가를 내줬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그 언덕 너머에다가 부처님 한 분을 모셔다 놓고는 목탁을 치면서 염불을 하시더랍니다.

한마음이 인생 이끌어

그런데 어느 날 마적들이 그냥 떼로 몰려 왔더랍니다. 떼로 몰려 와서 소금장수 할아버지한테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깐 소금장수가 돈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정 저거 하거들랑 소금이나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소금을 그냥 한 아름 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마적 떼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말거나 그냥 염불을 하고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는 마적들이 하는 얘기가 "참,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그러나?" 하면서 총을 빼 들고 야단들을 하는데도 총을 빼 들거나 말거나 그냥 염불만 하고 있다가 염불이 끝나기 전에 그냥, 총이라도 맞아서 넌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적 다섯 명이 총을 쏘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총을 쏘는 소리가 중국에까지 들렸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학생들이 물으니깐, 그 이름을 잊어 버렸으니깐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스님이 도를 이루시는 소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고서는 그 총 쏜 사람들은 전부 그 스님의 시자가 돼서 큰스님이 되고 그러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단 얘깁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건만 그곳의 마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셔서 그렇게 장난을 하셔도 아주 멋지게 장난을 하시고 잘 해결을 하고 소금을 만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하고 또 그 마적들은 시자가 돼서 중국으로 오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 애쓰고 살면서 애들도 기르고 어른도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데 한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본래부터 마음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아주 쉬운 거죠, 생각하기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일날이라고 해서 자기 생일로 알지 말라고요. 내 생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고생하신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가 모두 그렇습니다.

> **미련하지도 말고 악하지도 말고**
> **마음 씀씀이대로 경우맞게 살면**
> **자식들까지 대대로 잘 살수 있어**

스님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공부를 하러 가시는 데도 너무 뜨겁고 굶으면서 가다보니깐 쓰러져서 죽는 분도 계시고 쓰러져서 정말 허우적거리다가 남이 소금을 타서 좀 주면은 그걸 먹고 살아나고, 쌈지에다 소금을 좀 싸서 허리춤에 매고 길을 떠나곤 했답니다. 그러니 그것도 한 주먹의 소금이지만 태산같이 알고 거기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장육부를 다 적시기 위해서 내부의 모든 생명들하고 더불어 같이 하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결정을 짓고 떠나고 이렇게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우리가 이 날까지 살면서 한마음을 잘 쓰면 여유있게 살 수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가, 나는 팔자가 어째서 이럴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로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깐 지금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소리를 가끔 하지만은 짐승이 차에 치어서 동강이 나서 버려진 거를 통에다 담아서 모래바닥에 묻어주었습니다. 묻어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묻어준 그 짐승이 훨훨 날아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집 구렁이로 여러 해를 살다가 아마 차에 치여서 그렇게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깐 그 구렁이가 생각을 하기를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 모습을 벗고 보살로 화현을 해 가지고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목이지, 광목이 하늘로, 그냥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조금도 어김이 없이 미련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그저 마음 씀씀이대로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라.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끔 살면 아주 유유히 자식들도 대대로 내려가면서 잘 살 수 있느니라.' 그러고 했답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거짓인 줄 알지 마시고 아주 침저히 느껴보세요. 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들은 간곡히 몇 번 정성을 올리는데 그 분들이 올리는 걸 가만히 보고, 이건 꼭 해야지 하는 생각이 귀정이 지어져야 그 분들이 펴지나 봅니다. 그러니깐 어느 정도 마음이 항상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너무 급하게 돌아가면 급한 대로 또 사정이 급한 대로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달렸습니다. 모든 일이 말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자면 많고도 많지만은 질문 할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먼저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큰 도량을 만들어 주신 스님, 그리고 선원의 모든 도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봄사를 하고 나니 저희 울산지원이 성지순례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두 사찰에서 다녀갔습니다. 이에 더욱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 집 보살과 아이들이 선원과 인연이 된 지가 4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 집 보살이 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저는 선원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만 더 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보살과 저는 간혹 아이들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아이들이 무사히 진학을 하게 되고,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아빠를 이해하는 큰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고 마음공부가 괜찮구나! 정말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에 나온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떨 때는 생기고 어떨 때는 귀찮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로 잡고 열심히 정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떠올려 봤습니다. 늘 제 가슴에 스승님의 화살을 하나 팍 꽂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잡념이 나오지 않고 일심으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사르잡을 수 있도록 가르침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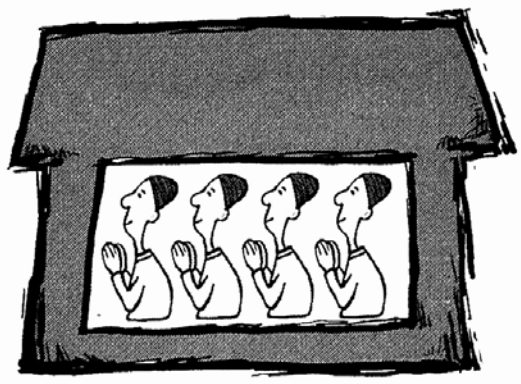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천도재에 관한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천도재에 대한 내용으로 스님께 여쭙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기재사를 지낼 때에 조상님의 기재사를 정성껏 모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도재를 지낸다는 것이 꼭 도량에서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재사를 정성껏 지내는 것과 도량에서 지내는 것의 그 차이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천도재때 정성 지극히

▲스님: 일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봅니까? 아니죠? 법정에서 결정을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법정이 들어서서 돌보고 한다는 겁니다. 결정을 짓는다는 얘깁니다.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공부를 해왔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돌아가셨나, 또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하는 거를 보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보아서 잘 살았으면 저절로 잘 되게 하고 즉 말하자면 법원에서 임명장을 주어서 내 보내는 거구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서 또 다른 보살들이나 부처님들이 다들 돌보아서 부모가 착하고 자식이 착하고 정성이 지극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는 거와 절에 와서 천도재를 지내는 건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질문자1: 스님, 그렇다면 저희들이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의 그 마음을 내는 것과 도량에서 스님들이 마음을 내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스님: 아니죠. 자손들이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집에서 지낸다 해도 갸륵하겠지만 천도재를 절에서 지낼 때는 더 한층 생각을 내시겠죠. 그러면서도 돈이 들어도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없이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원인은 그냥 그렇게 해도 거저가 없단 얘기예요. 에누리가 없단 얘기입니다. 들이면 들이는 대로 그 들이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죽어서 사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살아서 사는 세상의 법칙이 있듯이 법칙대로 어떻게 살았나? 너는 이 생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나를 다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서 다 잘 되게 하는 분은 잘되게 재생을 하시게 하고, 또 너무 안 좋게 돌아가셨거나 너무 처참하게 문제가 됐을 때는 돌봐 주시고 그런 거를 다 없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깐 잘 된 거면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한 거는 잘 마련을 해서 잘 되겠끔 해드리죠.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빼내 주는 형국이다 이 얘기죠. 안 들어간 분은 안 들어간 분대로 잘 하게 하시고 들어간 분들은 들어간 분대로 그렇게 빼내 주는 이치가 되는 거죠.

▲질문자1: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아직까지 초보자라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믿음이 절실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직장을 마치고 선원에 가서 법회를 본다거나 하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올라오는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싫다는 마음이 생길 때는 가지 않는 것도 좋아요. 하하하…. (대중 웃음) 싫을 때는 가지 마시고 아주 좋을 때만 가세요. 싫을 때는 아무리 가봐도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깐 좋을 때, 항상 좋을 때만 하세요. 그리고 또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해도, 또 모두 나가서 일하는데 살아 나가는 데의 걸음걸이, 모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관하는 거는 내 보디가드가 항상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음도 싫음도 놓는 도리

예를 들어서 정신계의 자기, 물질계의 자기 모습. 모습은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거를 담당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정신계의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믿고 너만이 모든 일에 대해서 평등하게 보살필 수 있고, 너만이 우리 식구를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는 할 수 있고, 너만이 애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염원을 해서 딱 맡겨 놓아야죠. 집을 맡기고 어딜 가더라도 집을 잘 지켜 달라고 하고 가고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거든요. 자기 환생, 자기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 모습이 모습 없는 자기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가세요. 모습 있는 물질계의 자기가 모습 없는 자기한테 진짜로 맡기고 믿는 다는 거요. 그러면 어디를 가기 싫을 것도 좋을 것도 없이 갔다가 오는 게 좋다 생각이 들 때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뭐.

▲질문자1: 오늘 법문이 제 가슴에 탁 꽂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스님의 오늘 법문 저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요즘에는 여러분한테 말을 잘 못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자2: 지난 4월 22일 우리 지원의 점안 및 준공 법회에 오셔서 마음을 많이 내주신 스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원을 비롯한 전국지원의 도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장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달 전쯤에 저의 꿈에 스님께서 지원의 두 스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지극 정성을 다 하여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을 친견하여 가르침을 받게 될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제 자신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편이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서도 먼저 상대방의 입장

☞ 20면으로 계속

기쁘든 언덕을 넘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